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멀리에서 보고도 저것이 어떤 동물사인가를 대충 알수 있게 직관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설계되고 시공된 동물사들은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도 해당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에 들어선것 같은 느낌이 들게 손색없이 꾸려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커다란 거부기가 고개를 쳐든 모습을 형상한 파충관을 돌아보시고 정말 특색있게 건설했다고 치하하시였으며 원숭이관, 코끼리사, 기린사, 작은말사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고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참관자들이 찾아와 웃음꽃을 활짝 피울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맹수사를 돌아보시며 맹수사의 정면을 강질유리로 대주니 종전보다 보기가 좋다고, 참 잘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이 문을 열게 되면 우리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은 더없이 클것이며 세계 문명의 단상에 당당히 서있다는 긍지로 가슴부풀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품들여 새로 꾸린 보람이 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에 와보면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과 우리의 문명이 어떤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종업원들이 공사의 마무리를 잘하며 관리운영준비를 빈틈없이 갖출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8천만 겨레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초소로 떠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는 당중앙청사를 우러르며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조직지도하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백두의 대업을 완성하기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친 일대 정치적사변이였습니다.

저희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필승불패성을 만방에 과시하는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해외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위대성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영광의 시각입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해외혁명동지, 한집안식솔로 품에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남먼저 불러주시고 영광의 대회장과 경축행사장들의 앞자리에 내세워주시며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길에 한생을 바친 잊을수 없는 혁명동지들의 전렬에 한덕수 전 총련의장을 내세워주시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축기를 받아주시며 우리 당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과 함께 있다는 회상, 최대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실 때 저희들은 온 우주를 통채로 안은듯 무상의 행복감에 휩싸여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천하가 우러러 칭송하는 희세의 천출위인을 한자리에 모신 력사적인 당대회에 참가하여 천금과도 같은 믿음의 말씀을 받아안은것만도 더없는 행운이고 영광인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총련이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을 제일 선참으로 랑독하도록 각별한 은총을 지듬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총련이 태여난 추억깊은 5월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우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저희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전해갈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남다른 관심과 보살피심속에서 꿈같이 흘러간 이번 조국방문의 나날에 저희들은 일생의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될 참으로 귀중한것을 받아안았습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옥같은 충정의 세계에서 저희들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는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시대라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저희들은 조선로동당과 주체혁명위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며 백년대계의 혁명대강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받아안으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된 인류의 첫 리상사회는 우리 8천만 겨레의 나라, 백두산대국에 우뚝 세워질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5월의 대경축장들마다에 펼쳐진 수령결사옹위, 일심단결의 숭고한 대서사시적화폭을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선로동당의 부름따라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만리마속도로 최후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쳐나가는 강성조선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심장깊이 새기였습니다.

저희들은 조국방문의 나날 10년이 1년으로 앞당겨지고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신 비약과 전변이 일어나고있는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과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나오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참관하면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김정은천하제일강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가슴벅차게 그려보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성이 곧 불패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힘이고 사회주의완전승리이며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맞이하게 될것이라는것, 바로 이것이 이번 조국방문의 나날에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새겨안은 불변의 신념입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첫 당대회장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던 총련일군이라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억센 신념으로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개척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총련을 사회주의조국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해외애국조직으로 반석같이 다져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총련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본부, 지부를 비롯한 모든 조직을 일심단결의 성벽, 애족애국의 성돌로 굳건히 다지며 애족애국의 만리마진군운동인 지부경쟁운동과 애족애국모범창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하루빨리 열어제끼겠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답게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계속 특색있게 이바지해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하무비의 위대성에서 백두산통일대강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확신하며 초소로 떠나는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권화이시고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105(2016)년 5월 19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일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고위지도자와 총비서, 네팔공산당(마오바디) 중앙위원회 고위지도자와 총비서, 네팔로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 몽골인민당 위원장,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자티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캄보쟈푼신뻭크당 위원장, 끼르기즈스딴아딸랏당 지도자,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사회주의통일중심당(공산주의) 총비서,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정의의 로씨야당 위원장, 로씨야민족구국전선 위원장,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바자르로동당 위원장, 벨가리아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벨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스웨리예의 공산당 위원장,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딴자니아혁명당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전국지도자와 총비서,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총비서, 아프리카민주련합-기네민주당 총비서대리,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위원장, 말리를 위한 련합 위원장,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 민주꽁고인민혁명당 총비서대리,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우간다전국항쟁운동 총비서,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짚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미국12월12일운동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제비서, 고문, 미국맑스-레닌주의조직 총비서,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비서국 총조정자,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뻬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말따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스위스 이딸리아어지역공산당 정치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행정비서,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미국로동자세계당 전국위원회 비서국 성원, 김일성김정일기금 공동리사장, 국제반제조정위원회 총서기,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총서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아협주단 단장,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꾸바,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먄마, 몽골, 방글라데슈, 수리아, 캄보쟈, 타이, 파키스탄, 이란, 인디아, 일본, 윁남,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벨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리예, 슬로베니아, 체스꼬, 프랑스, 뽈스까,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딸리아, 에스빠냐, 기네, 나이제리아, 세네갈, 잠비아, 민주꽁고, 우간다, 에짚트, 에티오피아, 메히꼬, 바베이도즈, 브라질, 베네수엘라, 뻬루, 아르헨띠나,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축원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상최대의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세련된 령도예술,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인사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앙골라, 싱가포르 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드리는 선물을 정의의 로씨야당출신 국가회의 대의원 미하일 셰르쥬크와 앙골라 딸란뚜주교회대표 안또니우 도밍구스 삘리장가가 11일과 16일 해당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와 관계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정의의 로씨야당출신 국가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올해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새 세기에 들어와 처음으로 로씨야를 방문하신 15돐과 생애의 마지막시기 씨비리 및 원동지역을 방문하신 5돐이 되는 해이다.

뜻깊은 올해에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것을 기대한다.

가장 존경하는분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실것과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계승하시여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한다.

한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싱가포르 사진전문가 아람 관이 1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